



바이든, 대선 승리 초읽기..."선거인단 과반 확보 임박"(종합2보)

기사입력 2020-11-07 01:59 최종수정 2020-11-07 10:46

핵심 승부처 잇단 막판 뒤집기...'역전' 펜실베이니아 이기면 대선 승리
승부처 조지아도 개표 99% 상황서 극적인 반전...네바다도 격차 늘려



미 대선 D-1...펜실베이니아주 유세하는 바이든
(모나카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하루 앞둔 2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모나카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와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오하이오주를 방문해 막바지 총력 득표전에 나섰다. leekm@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6일(현지시간) 11·3 대선의 핵심 승부처에서 잇단 역전극을 펼치며 대선 승리 초읽기에 들어갔다.

개표율 90%를 훌쩍 넘긴 막바지 개표 시점에 연이어 '대어'를 낚으며 행운의 여신은 바이든 후보의 손을 들어준 형국이다.

CNN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치열한 경합주이자 핵심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역전했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95% 개표 시점부터 49.4%의 득표율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49.3%)을 0.1%포인트 앞서기 시작해 득표 격차를 늘려가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조지아에서도 오전 11시 39분 (한국시간 6일 오전 1시39분) 개표 기준 트럼프 대통령을 1천585표 앞서고 있다.

득표율은 두 후보 공히 49.4%로 동률이지만 득표수에서 리드한 것이다. 개표율 99% 시점에 벌어진 숨막히는 대반전이다.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와 네바다에서도 박빙 승부를 벌이지만, 바이든 후보가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에서 이기면 대선 승리로 이어진다는 게 미 언론의 공통적인 예측이다.

미국 대선은 엄밀히 말해 간접선거다. 11·3 대선에서 유권자 투표로 주별로 할당된 선거인단을 뽑으면 이 선거인단이 12월 14일 주별 투표 결과를 반영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미국 대선 승패 핵심 경합주 개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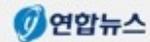
매체별 전망

7일 오전 9시 기준 (한국시간)



재검표 가능성 높은 핵심 경합주 NYT 집계 기준

주명	선거인단	개표율 (%)	득표율차 (%p)	득표수차
조지아 16	16	98	바이든 +0.09	+4,273
위스콘신 10	10	98	바이든 +0.6	+20,539
노스캐롤라이나 15	15	98	트럼프 +1.4	+76,623
펜실베이니아 20	20	96	바이든 +0.3	+16,784
애리조나 11	11	94	바이든 +1.2	+38,455
네바다 6	6	93	바이든 +1.8	+22,657



장성구 기자 이경아 인턴 20201107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미국 대선 승패 핵심 경합주 개표 상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yoon2@yna.co.kr

선거인단 전체 규모는 538명이며,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확보 '매직 넘버'는 과반인 270명이다.

현재 미 언론은 바이든 후보가 최소 25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분석한다.

AP통신과 폭스뉴스는 바이든 후보가 264명의 선거인단을 얻었다고 보고 있고, CNN, 로이터통신, 워싱턴포스트 등은 253명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CNN은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70명 확보에 임박했다"고 평가했고,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후보가 펜실베이니아에서 리드하고 있다며 "이곳의 승리는 결정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미 대선일에 고향 집 찾은 바이든
 (스크랜턴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대선일인 3일(현지시간)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중앙) 전 부통령이 두 손녀와 함께 어릴 적 자신이 살던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의 고향 집을 방문하고 있다. sungok@yna.co.kr

jbryoo@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 ▶[팩트체크]바이든은 '친일(親日)' 인사?
-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1998557>